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: 대학생부문

도심하천과 연계된 특화 가로 현황 분석

A Study on the Specialized Street Related to the Urban River

○엄도윤* 곽대현* 나윤성* 남현우* 박준영* 강석진** Eom, Do-yun, Kwak, Dae-hyeon, Na, Yun-Seong, Nam, Hyeon-Woo, Park, Jun-Young, Kang, Seok-Jin

키워드: 도심하천, 친수공간, 공공성, 이용자 행태

Keywords: Urban river, Waterfront space, Publicity, User behavior

도시의 하천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닌,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공간이다. 또한, 하천과 연계된 테마가 있는 특화 가로는 수변공간과 보행공간을 함께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J시 가좌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여가공간(일명, 볼래로 문화거리)의 현황을 분석하고, 정체성 회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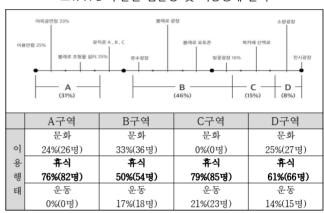
연구의 범위는 거점국립대학교에서 시작되는 가좌천(길이 820m, 너비 20~30m)이며,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체크리스트로 현황을 조사하고, 사용자 설문조사(총 108명)를 시행하였다.

연구 결과, 가좌천의 수질과 인접한 둔치의 조경수목 관리는 미흡하지만, 가좌천 상부에 위치한 보행로에는 잘 정비된 각종 데크 및 조형물이 설치된 차이가 있었다. 특히, 보행로에서 가좌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곳곳에 설치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변공간의 활용성 제약 및 관리의 문제와 연 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

가좌천 상부의 보행로(볼래로 문화거리)를 이용하는 주이용자(대학생)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부분 보행 중심의 통행로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다. 주 이용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었고, 다른 시간대의 이용 및 방문은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었다. 해당 공간에서의 이용 행태는 걷기가 64%로 가장 높아, 테마(주제) 공간으로서의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. 다만, 가장 접근성이 좋고 시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(A,B,C,D)에 대해서는 단순 보행 이외에 휴식과 운동, 문화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. 이들 구간에 설치된공간 및 시설은 공연장, 벤치, 오픈스페이스 등인데, 주말에는 벼룩시장이나 버스킹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.

(Corresponding author : School of Architecture,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, cpted@gnu.ac.kr)

표1. A-D 구간별 접근성 및 이용행태 분석



한편, 만족도 조사 결과 휴식 공간 부족(29명, 27%)과 야간 활동을 위한 조명 부족(29명. 27%)이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. 이는 이동과 함께 체류 공간으로 기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.



그림 1. 수변공간 테마에 대한 인식

그 밖에 볼래로 문화거리에 적용된 테마에 대해서는 모르는 비율이 78%(84명)으로 가장 높았고,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부족(무관심)과 차별성 부족, 적합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.

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수변공간과 연계된 특화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성이 있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가 필요하며, 인프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^{*}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학부 과정

^{**}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, 공학박사